

언어
신기

수능언어 -

기술이 아니고 유형이 해법이다

= 꼭 분석해야 할 비문학 기출지문 40선 그리고 문제유형 =

열공신기 유재완 지음

※ 이 책에 실린 독창적 내용의 글과 편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인 유재완에게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제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1. 비문학 기출 지문 40선을 뽑은 몇 가지 기준

- ① 지문 내용이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된 지문
- ② 수능 문제 유형을 잘 보여주는 지문과 문제
- ③ 출제 경향이 약간 바뀌면서 새롭게 제시된 지문과 문제
- ④ 수험생들의 오답률이 높는데, 출제방식을 알게 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

등등의 기준을 적용했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수능 언어의 출제원리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담고 있는 지문들을 선별했어요.**

2. 기출 40선을 활용하는 방법

① 수능 비문학 기출문제를 공부하지 못했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40선을 먼저 훈련하세요. 시험현장처럼 시간을 재서 두 세 지문을 한 번에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문 분석과 문제 분석을 한 지문 당 20~30분 정도 들여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여기 나온 유형과 출제원리가 정말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거예요. 그렇게 분석해보는 과정에서 수능언어의 출제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문제 해석 능력이 커지게 될 거예요.

비문학 문제 유형이 눈에 들어오면 그 때부터 EBS 비문학 교재를 두 번 이상 보셔야 할 거예요. 지문 읽는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많은데, EBS 교재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시간을 재서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EBS 문제를 검토할 때, ‘더러운 문제’가 나오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로 넘어가도 돼요. 시각적 자료가 나오는 문제는 잘 보아두어야 할 거구요.

(인터넷 수능 비문학 필독 지문 리스트를 올려 놓은 부분이 있어요. 필독 지문에 해당하는 EBS 부분을 공부하면 공부량이 절반 정도는 줄어들 거예요. 오르비나 수만회에서 찾아 보시고 못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수능완성’도 필독 지문을 선정해서 곧 게시판에 올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EBS 교재를 두 권 사세요. 한 권은 지문 분석과 문제 분석을 위해서 교재에 메모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지문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아야 하는데 낙서가 되어 있으면 읽기에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낙서가 되지 않은 새 책으로 두 번째 읽기 연습하시고 지문 내용을 파악하세요.

②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에 제시하는 기출문제는 다 풀어 보았을 거예요. 이런 수험생들은 문제 출제원리와 해결 방법을 이해하는 쪽으로 검토하면 될 거예요. 문제 해석하는 능력을 한 단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③ ‘수학처럼 정답이 보이는 언어신기’에 실려 있는 14개 지문과 새롭게 정리한 26개 지문을 함께 제시했어요. 해설이 필요한 수험생은 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가장 최근의 수능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고, 출제원리를 뚜렷이 보여주는 문제 유형을 담고 있는 지문이에요.

26개 지문과 문제는 3~5년 사이에 출제된 수능문제,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에서 뽑았어요. 40개 지문으로 훈련하고 분석하면 수능 언어를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금년도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읽기 훈련하는 것보다는 EBS 교재로 읽기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5개 지문이 출제되니까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40개 정도의 지문과 문제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해요.

④ 여기 제시한 40개 지문과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한 교재를 새롭게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하나의 지문을 정밀히 분석하여 사례로 제시하고 있어요. 40개 지문 전체에 대해 분석이 세밀하게 된 교재가 있다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여러분들이 성원이 있으면 9월말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많이 성원해주세요. ^^

3. 수능 비문학 지문은 딱 , 2 종류이다!

와, 뽕이 심하다 생각할 거예요. ^^.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딱, 2가지예요.

일단 이점을 같이 생각해봐요. **주장문은 수능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이에요. ‘수능’! 대학에 와서 공부할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읽어야 할 글들은 바로 대부분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설명문 위주로 수능 비문학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대학원이나 의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언어 추론 시험(LEET/MEET)을 보는데, 이 시험에서는 주장문이 중요한 제재가 되죠. 왜냐하면 변론하거나 남을 설득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거예요. 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원리도 달라지죠. 그래서 대학원 언어추론문제 중에서 주장문은 수능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거예요.

주장문을 제외하면 설명문만 나오니까 글의 종류는 딱, 하나네요. ^^ 그런데 설명문은 딱, 2가지로 나뉘죠. 설명하는 대상이 무어냐에 따라 2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구체적 대상을 설명하는 글**이죠. 인간 눈에 보이는 구체 사물을 설명하는 글이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생각(=관념)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이렇게 딱 2가지, 즉 사물대상을 설명한 글과 관념대상을 설명한 글로 나뉘는 거예요. 너무 뻘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수능 언어의 출제 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밖에 출제할 수 없는 원리, 이게 바로 출제 원리인 것이죠. ^^

4. 수능 비문학을 해결하는 원리는 딱, 2가지이다.

1) 일대일 대응의 원리

구체 대상을 설명한 글은 어떻게 설명을 해나갈까요? 외부 대상을 하나 하나 지적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에어컨에 대해 설명한다면 에어컨의 대상을 하나 하나 분석하면서 설명하겠죠. 이런 글에서는 외부대상과 정확히 관련될 거예요. 즉, 글에 나온 용어나 표현이 외부대상을 정확히 지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의 내용과 외부 대상 사이에 일대일 대응의 관계**가 생길 거예요.

자, 이런 글을 읽은 학생에게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묻고 싶어요. 읽기 능력을 평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글에 나온 에어컨의 모습이나 원리를 시각적으로 주거나 <보기>에 다시 에어컨 상황을 주고서 세부정보를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동차 엔진 상황을 주고서 물을 수는 없잖아요?

질문 받은 학생은 **글에서 확인한 세부정보와 <보기>의 상황을 일대일로 대응시키면서 일치시켜 나갈 것**이에요. 이런 방식이 바로 일대일 대응의 원리예요.

사물대상을 설명하는 글	설명방식	세부정보를 자세하게 나열하거나 세부정보 사이 관련성을 서술해나간다.
	출제원리	지문에 나와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보기>에 제시하고, 세부정보는 <보기>와 일대일로 대응한다.
	해결원리	일대일 대응의 원리로 일치하는가를 따져본다.
	적용지문	과학, 기술, 언어 지문은 주로 여기에 속한다.

2) 유사성의 원리

자, 그렇다면 관념 대상을 설명한 글은 어떻게 설명을 하나갈까요? 머릿속에 있는 관념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자유니, 정의니 미적 쾌락이니, 하는 것들은 머릿속에 들어 있는 추상적 개념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글에서는 글의 화제어인 관념 대상을 다른 추상적 개념어를 통해 설명하게 되죠. 즉, 추상적 개념어들을 자꾸 바꿔가며 그것의 내용을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휘나 용어를 바꿔가며 설명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관념 대상과 관련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용어나 어휘를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모두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휘들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등이라는 말과 형평이라는 말은 서로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지만 문맥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추상적 개념어로만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관념 대상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들면서 그것의 의미를 밝히기도 하지요. 즉, 추상적인 내용들이 어려우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예요.

자, 이런 글을 읽은 학생에게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묻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또 다른 추상적 개념어를 동원해서 글 내용을 물어 보면 아마 수험생들은 두 번 죽게 될 거예요. ^^ 지문 읽는데도 죽어나가는데, <보기>나 선택지가 또 한번 죽여주니까요. ^^ 이런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추상적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즉, 지문에 나온 관념 대상이나 추상적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서,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는가 못했는가를 묻게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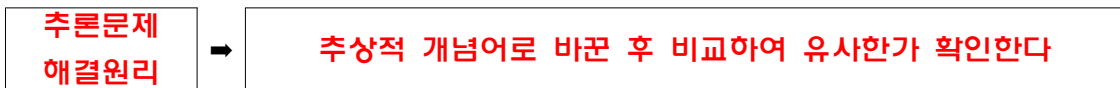
이러한 질문을 받은 학생은 지문의 내용과 구체적 사례 사이에 서로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게 되죠. 유사성이 있으면 같은 것이고, 유사성이 없으면 서로 다른 것들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유사성은 추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인 것이죠. ^^

관념대상을 설명하는 글	설명방식	추상적 개념어를 바꿔가며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개념의 의미를 서술한다.
	읽기목표	개념과 개념의 연관성을 잘 파악해야 하고, 어휘와 표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출제원리 해결원리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상황을 <보기>에 제시하고, 개념과 <보기> 사이에 유사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적용지문	인문이나 예술, 사회 지문이 여기에 속한다.

※ 유사성 원리가 적용되는 추론문제의 출제원리와 해결방법



- ① 지문의 내용을 <보기>나 선택지에서 단어나 표현을 바꾼다.
- ② 지문의 내용이나 개념이 적용되는 상황이나 사례를 제시한다.
- ③ 지문의 내용과 유사한 것, 일치하는 것을 찾도록 요구한다.



- ① 추론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지문에서 확인한다.
- ② 지문의 내용을 하나의 추상어나 이항대립적 개념어로 바꾸어 본다.
- ③ <보기>와 선택지도 추상어나 이항대립적 개념어로 바꾸어 본다.
- ④ 이것들을 비교하여 유사한지 아닌지 살펴본다.

(※ 이항 대립적 개념어는 자유-평등, 전체-부분, 내용-형식 등 서로 의미상으로 대립하는 단어들이 쌍을 이루고 있는 추상적 개념어를 말해요.)

5. 수능 비문학의 문제 유형은 딱, 3가지이다!

이 말에는 약간의 뻥이 있어요. ^^

그런데 시험현장에서 볼 수 있는 주요 문제유형은 정말 3가지 정도입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 문제지를 꺼내서 비문학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세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휘 문제는 제외합니다. ^^

첫째, 일치-불일치 문제이에요. 비문학 지문에 나오는 첫 문제는 거의 이런 유형의 문제이죠. 이런 문제는 글 자체, 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사실적 문제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이같은 문제유형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에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문제에서는 선택지 구성이 지문 전체와 관련되요. 선택지 문항 하나 하나를 지문 속에서 찾아 일대일로 대응시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따져보아야 해요.

둘째,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묻거나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묻고 있죠. 이런 문제는 추론 문제이죠. 글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라는 문제이니깐요. 이런 문제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 글 속에 존재하죠. 바로 추론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필요해요.

셋째, <보기>를 주고 지문과 관련시켜 묻는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죠. 지문이 구체 대상을 설명한 글이라면 보통 **똑같은 상황**을 주고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는가 묻는 문제가 출제되요. 지문의 대상이 관념적인 거라서 추상적인 개념어로 설명한 글이라면 보통 **구체 상황**을 주고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요. 이런 문제는 <보기>나 선택지 문항에서 어휘나 표현을 바꾸거나, 사례를 주기 때문에 지문과 <보기> 사이, 지문과 <보기>와 선택지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보아야 해요.

문제유형	출제의도	출제원리	지문과 관련성	해결원리
일치-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문의 내용을 단순 요약하여 묻는다. 선택지 몇몇 문항은 어휘와 표현을 바꾼다. 이런 문항은 추론적 성격을 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 전체에서 선택지 문항을 구성한다. 그래서 하나 하나 대응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지와 지문 사이에 일대일 대응으로 해결된다. 선택지에 어휘나 표현이 바뀐 부분은 지문의 어느 부분과 관련되는지 찾고 나서 유사한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추론 근거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묻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확인한다. 또는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단락에 밑줄을 치고 그것의 의미를 묻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뒤 문장에서 문맥적 의미를 확인하거나, 그 문단 내에서 확인한다.
같은 상황에 적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문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상황을 주고 세부정보를 묻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 중간 부분의 특정 단락과 연결된다. 주로 핵심적인 세부정보나 개념들이 제시되는 단락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문과 <보기> 사이에 일대일로 대응시켜 일치하는지를 살펴본다.
구체 상황에 적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문에 나온 추상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주고 그것의 의미를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문에 나온 개념이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유사성을 따져본다. 구체 사례를 추상화하여 하나의 개념어로 바꾸어 비교하면 수월하다.

(※ 수능 비문학 문제의 출제원리와 해결원리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

5. 열공신기가 분류한 비문학 문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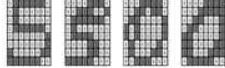

사고력 평가에 기초한 문제유형	사실적 문제	일치-불일치 문제	
	추론적 문제	추론의 범위와 근거를 확인하는 문제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적용의 문제)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보기〉 문제)
비판적 문제	논리학적 비판 문제		
실전에서 유용한 문제유형	문제조건과 해결 실마리가 암시된 문제	☞ 고난도 추론문제에 속한다. 추론문제와 성격이 동일하지만 해결 실마리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된다.	
	옛글을 지문으로 주는 문제	☞ 옛글은 글의 성격에 따라 출제 방향이 달라진다. 글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매력적 오답이 포함된 문제	☞ 대부분 문제에 매력적인 오답이 들어 있다. 매력적 오답을 만드는 방법과 유형을 파악하는 훈련 문제이다.	

- 1) 추론적 문제는 다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추론의 근거를 찾는 문제, 다른 하나는 지문의 내용과 같은 상황을 주는 적용하는 문제와 그리고 지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주고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 2) 논리학적 비판 문제는 주로 숨은 전제 찾거나 반론 펴기 문제로 출제된다. **주장문**이 가끔 제시되는데, 이런 지문에서 **논리학적 비판 문제**가 어찌다가 출제된다. 보통 **주장-근거/전제-결론의 관계**를 묻는 수준에서 출제된다.
- 3) 실전에서 유용한 문제 유형은 임의적으로 분류한 문제 유형이다. **복합적인 추론 문제**들은 지문의 내용을 특정한 방향으로 활용해야만 해결된다. 이럴 때 문제 조건이 포함된 추론 문제로 출제된다. 옛글은 최근에는 잘 출제되지 않지만, 참고해둘 필요가 있다. 매력적인 오답이 포함된 문제는 문제 유형이라기보다는 오답을 만드는 기술을 확인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6. 비문학 문제 유형을 ‘현미경’ 으로 들여다 보면? (분석 사례)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우편물들은 발송 지역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우편물 분류 작업은 우편번호 숫자를 인식함으로써 자동화될 수 있다. 이때 자동분류기는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 ①학습은 상호 작용의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 따라 자동분류기의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즉, 자동분류기는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2010학년도 9월
(36~39번)

	학습 데이터	실험 데이터
필기체 숫자	5 5 0 0	5
입력 특징		
목표치	5 5 0 0	

우편번호 자동분류기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편번호 숫자를 하나씩 분할하고, 0부터 9까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입력 특징을 찾아야 한다. 위 그림은 필기체 숫자를 가로, 세로 8등분하여 연필이 지나간 자리를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주어, 입력 특징을 추출한 것이다.

다음으로, 추출된 특징으로 학습할 때 분류기에 목표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감독할 수 있다. 즉, 입력 특징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면 분류기는 데이터를 제시된 목표치로 분류하도록 학습한다. 이렇게 목표치를 이용하는 학습을 ②감독학습이라 한다. 숫자 분류기에 0부터 9까지 각각의 숫자에 대한 목표치가 제공되면, 분류기는 감독학습을 수행한다. 위의 그림에서 분류기는 네 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입력 특징과 목표치를 통해 학습한다. 이 학습을 통해 두 개의 ‘5’와 두 개의 ‘0’을 각각 같은 숫자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5’와 ‘0’을 서로 다른 숫자로 분류해 내는 함수를 만든다. 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그림의 실험 데이터는 숫자 ‘5’로 인식된다.

그러면, 목표치를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할까? 목표치가 없을 때는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입력 특징들의 유사성을 찾아 군집화한다. 이와 같이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는 학습을 무감독학습이라고 한다. 예컨대 위 그림에서 네 개의 필기체 숫자에 대한 입력 특징만 주어지면, 무감독학습은 비슷한 입력 특징을 가진 숫자들을 ㉠모아 ‘5’ 또는 ‘0’에 대해 군집화하는 함수를 만든다. 무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실험 데이터는 ‘5’의 군집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학습된 자동분류기는 실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는지에 따라 그 성능이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우편물을 지역별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1. 위 글의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일치-불일치 문제)

- ① 자동분류기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우리나라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총 6종류의 목표치를 이용한다.
- ③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일정한 종류의 필기체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 ④ 자동분류기는 0부터 9까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입력 특징을 사용한다.
- ⑤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필기체 숫자의 목표치가 없으면, 유사한 입력 특징을 가진 것끼리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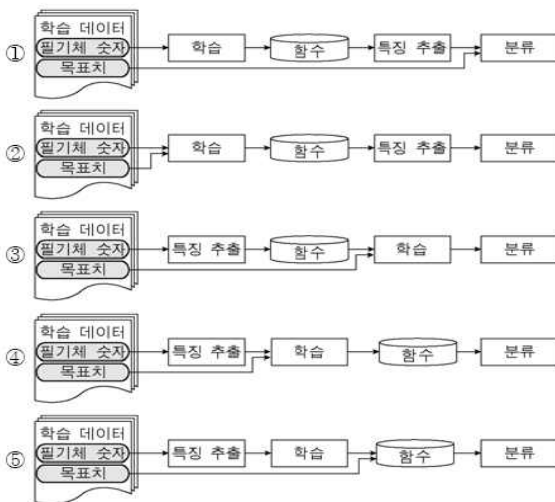
2. 휴대 전화의 기능을 소개하는 문구 중, ㉠의 기능을 담은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 ① 전화가 걸려 오면 등록된 수신 거부 목록과 일일이 대조하여, 목록에 있는 번호이면 수신을 거부한다.
- ② 휴대 전화를 든 손으로 등록된 단축 번호를 공중에 쓰면, 전화기가 숫자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건다.
- ③ 사용자의 음성 특징을 추출하여 사용자와 타인의 음성을 분류하면, 사용자의 음성으로만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휴대 전화에 닿는 형태를 유형화하여 접촉과 비접촉을 구별하면, 전화벨이 울리는 중에 휴대 전화에 손이 접촉할 경우 진동으로 전환된다.
- ⑤ 휴대 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얼굴 영상들에서 색상값과 얼굴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과 얼굴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면, 사람이 움직여도 얼굴을 중심으로 촬영한다.

3. ㉠을 이용한 필기체 숫자 분류기의 구성도로 옳은 것은?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지문 분석 과정]

(1) 지문 분석할 때 유의할 점

● 실제 시험 현장에서 지문을 읽어 나갈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 염두에 두면서 지문 분석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지문 분석을 하기 전에 지문을 실제 시험 현장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읽어 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설사 여러 번 분석한 기출 지문이라도 말이죠. 지문 읽기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가, 지문 읽기 과정이 문제 풀이 과정과 잘 연결되었는가 등등을 생각해보는 것이예요.

● 사례로 제시된 지문은 기술 지문이에요. 첫 문단을 읽어보니까 추상적 개념어로 설명하고 있군요. 아하, 관념 대상을 추상적 개념어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구나를 펴뜩 알아차려야겠지죠. 설명문은 2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글을 읽어 나갈 때에는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술 지문은 보통 구체 사물을 설명하는 글과 관련되지만, 예시 지문처럼 추상적 개념어를 동원하면서 설명하는 글이 꽤 많아요. 이것은 기술 지문과 관련되지요. **기술 지문에서는 순서와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과학 원리를 적용하는데 순서와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순서와 과정을 추상적 개념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매우 어렵고, 아주 전문적인 분야의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의 배열과 연결 리스트’ 지문이나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지문도 이런 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 첫 문단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글 전체의 화제어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화제어가 갖고 있는 속성, 특성, 또는 정의** 등이예요.

(2) 예시 지문 분석

<첫 문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첫 문단을 읽어도 3번째 문장의 내용이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추상적 개념어로 설명하는 글에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이죠. 이럴 때 이 문장을 이해하겠다고 다시 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음 문장이나 그 다음 문장을 계속 읽어 나가세요. **이러한 어려운 추상적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보통 그 다음 문장에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 오거나 예시 문장이 나오거든요.** 수능 지문에서는 100% 그렇습니다. 넷째 문장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마지막 문장에 가서야 '즉'이라는 부연설명 연결어가 나오면서 다시 설명하는 부분을 읽어 보면 어렵듯이 이해되죠. '기억이 아니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우편물들은 발송 지역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우편물 분류 작업은 우편번호 숫자를 인식함으로써 자동화될 수 있다. 이때 자동분류기는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 ①학습은 상호 작용의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 따라 자동분류기의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즉, 자동분류기는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 ① 부연설명하고 있어요. 학습능력 → 학습 → '기억이 아니라 분류하는 능력'으로 개념을 바꿔가면 화제어를 설명하고 있네요.
- ② ① 문장은 글의 화제어인 '학습'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문장으로 보이고, 앞 뒤 문장은 '학습'의 특성, 속성으로 볼 수 있어요.

☞ 첫문단 읽기의 방법

- 1) 먼저 빠르게 속독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정독하세요. 처음 속독할 때는 50~60% 정도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정독할 때 첫 문단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 2) 두 번째 정독할 때 글의 화제어와 화제어의 속성을 확인하세요. 화제어의 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화제어의 속성은 일치-불일치 문제의 선택지 문항에 제시되거나, 고난도 추론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 3) 글의 화제어가 개념어일 경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문맥에서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이 지문에서는 화제어가 '우편물 자동 분류기의 학습'이네요. 더 줄여서 말하면 '학습'이에요. '학습'과 관련된 속성이 바로 '학습'이라는 개념어의 문맥적 의미가 되는군요.

<둘째 문단, 셋째 문단>

첫 문단 읽기에서 어느 정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면, 그 다음 문단부터는 핵심적인 세부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해요. 특히 기술 지문에서는 순서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와 과정을 알려 주는 연결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기술 지문이 아니더라도 수능 비문학에서는 세부정보를 제시할 때는 딱 딱 떨어지도록 서술하죠. 그래서 연결어에 신경써야 해요.

우편번호 자동분류기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편번호 숫자를 하나씩 분할하고, 0부터 9까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입력 특징을 찾아야 한다. 위 그림은 필기체 숫자를 가로, 세로 8등분하여 연필이 지나간 자리를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주어, 입력 특징을 추출한 것이다.

다음으로, 추출된 특징으로 학습할 때 분류기에 목표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감독할 수 있다. 즉, 입력 특징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면 분류기는 데이터를 제시된 목표치로 분류하도록 학습한다. 이렇게 목표치를 이용하는 학습을 감독학습이라 한다. 숫자 분류기에 0부터 9까지 각각의 숫자에 대한 목표치가 제공되면, 분류기는 감독학습을 수행한다. 위의 그림에서 분류기는 네 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입력 특징과 목표치를 통해 학습한다. 이 학습을 통해 두 개의 '5'와 두 개의 '0'을 각각 같은 숫자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5'와 '0'을 서로 다른 숫자로 분류해 내는 함수를 만든다. 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그림의 실험 데이터는 숫자 '5'로 인식된다.

☞ 둘째 셋째 문단의 세부정보 확인

- 1) 먼저 → 입력 특징
- 2) 다음으로 →분류기에 목표치 제공 (= '감독학습')
- 3) 이 학습을 통해 → 숫자 분류하는 함수 만들

<넷째 문단>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할 때 **각 문단의 머리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대개는 위 단락의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전개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넷째 단락에서는 둘째나 셋째 단락의 학습과정과 **다른 학습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빠르게 읽다 보면 그것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신중히** 읽으면서 이러한 흐름을 파악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목표치를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할까? **목표치가 없을 때는**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입력 특징들의 유사성을 찾아 군집화**한다. 이와 같이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는 학습을 무감독학습이라고 한다. 예컨대 위 그림에서 네 개의 필기체 숫자에 대한 입력 특징만 주어지면, 무감독학습은 비슷한 입력 특징을 가진 숫자들을 ①모아 '5' 또는 '0'에 대해 **군집화하는 함수를 만든다**. 무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실험 데이터는 '5'의 군집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된다.

☞ 넷째 문단의 세부정보 확인

● 목표치가 없을 때



- 1) 입력특징의 유사성을 찾아 군집화
- 2) 군집화 함수를 만들

☞ 지문 중간 부분 읽기 방법

- 1) 복잡한 세부정보가 나오는 글 중간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읽어 낼 수가 있을까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글의 논리적 흐름을 정확히 알려주는 연결어, 단락의 머리 부분 등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려운 지문일수록 이러한 안내판이 명확히 존재하거든요. 그것들에 의존하면서 글을 읽으면 아주 수월하지요.
- 2) **글 중간 부분에서도 「속독 → 정독」 하면서 두 번 읽는 것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빠르게 읽고서 읽은 부분의 내용을 대강을 파악한 후 **다시 정독하면서 세부정보를 분류하는 거예요.** 세부정보의 분류는 아주 중요해요. 추론 문제나 <보기> 문제는 글 중간과 관련되거든요. 세부정보를 분류할 때 시험지에다 하세요. 머릿속에 하게 되면 두 세 줄 문장을 읽다가 혼동 상태에 빠지거든요.
- 3) 한 문단 전체를 한 번에 속독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잡한 세부정보가 나오는 경우, 여기 예시 지문에서는 셋째 단락이나 넷째 단락의 경우 **단락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서 「속독 → 정독」 → 「속독 → 정독」 → 「속독 → 정독」 식으로 읽으면 복잡한 내용이 신기하게도 잘 정리되요.**
- 4) 읽기 속도가 느린 사람은 **비문학을 실전처럼 훈련할 때, 바로 이런 읽기 속도를 높이는 훈련이어야 해요.** 시험 현장처럼 시간을 재면서 매일 읽기 훈련을 2~3개 지문씩 꾸준히 수능 시험 전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향상이 있을 거예요. 수능 전까지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매일 꾸준히 하세요.

[문제 분석 과정]

(1) 일치-불일치 문제 유형

☞ 일치-불일치 문제의 일반적 특성

1)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선택지 문항은 글 전체에서 따옵니다. 어디와 연결되는지 하나 하나 살펴보아야 해요.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에서는 일치-불일치 문제가 매우 어려웠어요. 올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선택지 한 문항 내지 두 문항 정도는 지문과 달리 용어나 표현을 바꿀 거예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6월 모의고사는 모든 문제에서 지문의 내용을 단순 요약했지요. 지문을 한 번 정독하고 선택지를 보면 바로 일치-불일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9월 모의고사는 한 두 문항 정도는 지문의 내용과 달리 어휘나 표현을 바꾸었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6월 모의고사에 비해 문제 풀 때 답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점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2) **첫 문단에 나오는 화제어의 속성은 선택지 문항에 포함되죠.** 이 부분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구요. 그만큼 첫 문단에 나오는 화제어의 속성이나 특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3) **정답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정답이 확인되면 다른 선택지 문항을 검토하지 마세요. 시간을 아껴야 해요. 일치-불일치 문제는 글 전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 대응해서 명확하게 답의 근거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1. 위 글의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동분류기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우리나라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총 6종류의 목표치를 이용**한다.
- ③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일정한 종류의 필기체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 ④ 자동분류기는 0부터 9까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입력 특징**을 사용한다.
- ⑤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필기체 숫자의 목표치가 없으면, 유사한 입력 특징을 가진 것끼리 모은다.

<첫 문단>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우편물들은 발송 지역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우편물 분류 작업은 우편번호 숫자를 인식함으로써 자동화될 수 있다. 이때 자동분류기는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학습은 상호 작용의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 따라 자동분류기의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즉, 자동분류기는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 문단>

우편번호 자동분류기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편번호 숫자를 하나씩 분할하고, 0부터 9까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입력 특징**을 찾아야 한다. 위 그림은 필기체 숫자를 가로, 세로 8등분하여 연필이 지나간 자리를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주어, 입력 특징을 추출한 것이다.

<세째 문단>

다음으로, 추출된 특징으로 학습할 때 분류기에 목표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감독할 수 있다. 즉, 입력 특징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면 분류기는 데이터를 제시된 목표치로 분류하도록 학습한다. 이렇게 목표치를 이용하는 학습을 ㉡**감독학습**이라 한다. 숫자 분류기에 **0부터 9까지 각각의 숫자에 대한 목표치가 제공되면**, 분류기는 감독학습을 수행한다. 위의 그림에서 분류기는 네 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입력 특징과 목표치를 통해 학습한다. 이 학습을 통해 두 개의 ‘5’와 두 개의 ‘0’을 각각 같은 숫자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5’와 ‘0’을 서로 다른 숫자로 분류해 내는 함수를 만든다. 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그림의 실험 데이터는 숫자 ‘5’로 인식된다.

- ① ‘자동 분류기의 성능’이라는 어절은 첫 문단의 3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즉, ‘학습’에 대해 개념을 정리해주는 부분에 나오네요. 개념어의 경우, 특히 글의 화제어일 경우 정의를 내리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지에 나오는 ‘학습 데이터 양’이 지문의 ㉠ 문장에 나오지 않아요. **‘경험하는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 양**으로 표현이 바뀐 것인데, 서로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요. 어디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경험하는’**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경험’이 늘어나는 것은 경험의 횟수와 경험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학습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선택지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일치하지 않군요.
- ② **0~9까지 각각 숫자에 대한 목표치 제공**은 10가지 종류를 의미하죠. 선택지에서는 6종류의 목표치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일치하지 않네요.
- ③ 첫 문단에서 ‘학습’의 속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네요. 학습은 기억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역시 일치하지 않네요.
- ④ ‘차이를 최소화하는 입력특징’은 지문에 나오는 **‘잘 구별할 수 있는 입력 특징’**과 유사하지 않네요. 잘 구별하려면 차이가 최대화되어야겠지요.
- ⑤ 넷째 문단의 머리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단순 요약하고 있어서 바로 일치-불일치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예시 문제에 나온 일치-불일치 문제의 특징과 해결 Tip

- 거의 모든 문항이 지문의 내용과 다르게 어휘나 표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해요. 정답도 ⑤번에 배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 일단 선택지 문항을 빠르게 읽어 보면서 확실히 맞는 정답이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확실히 맞는 정답이 확인되면 지문 내용과 다시 확인해보고 다른 문항을 검토하지 마세요. 일치-불일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정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에요.

(2)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유형

☞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의 일반적 특성

- 1)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문맥 속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문장에서** 살펴보아야 해요. **그리고 앞뒤 문장 사이에서** 의미를 따져 보아야 해요. **나아가 그 문단 안에서** 문맥적 의미를 살펴보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 2) **밑줄 친 부분 앞에 지시어가 있다면**, 그 지시어가 가리키는 곳을 확인해보아야 해요. 지시된 부분 속에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 3) **글 전체와 관련해서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추상적 관념 대상을 설명하는 글에서 종종 나타나요. 추상적 개념어나 어휘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어휘가 바뀔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화제어와 관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글 전체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추론 문제가 종종 출제되기도 해요.
- 4) 밑줄 친 부분이 개념어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상황이나 사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개념어로 줄 경우에는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잘 포착해야 해요. **구체적 사례나 상황을 줄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하나의 추상적 개념어로 바꾸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지와 비교해보는 거예요.

2. 휴대 전화의 기능을 소개하는 문구 중, ㉠의 기능을 담은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전화가 걸려 오면 등록된 수신 거부 **목록과 일일이 대조하여**, 목록에 있는 번호이면 수신을 거부한다.
- ㉡ 휴대 전화를 든 손으로 등록된 단축 번호를 공중에 쓰면, **전화기가 숫자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건다.
- ㉢ 사용자의 음성 특징을 추출하여 사용자와 **타인의 음성을 분류**하면, 사용자의 음성으로만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 휴대 전화에 닿는 형태를 유형화하여 **접촉과 비접촉을 구별**하면, 전화벨이 울리는 중에 휴대 전화에 손이 접촉할 경우 진동으로 전환된다.
- ㉤ 휴대 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얼굴 영상들에서 색상값과 얼굴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과 얼굴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면, 사람이 움직여도 얼굴을 중심으로 촬영한다.

● 밑줄 친 ㉠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즉, 선택지와 비교할 수 있는 추론의 근거를 확보해야 하지요.

1) 첫 문단에서 ㉠이 포함된 문장과 앞 뒤 문장에서 그 의미를 추출할 수 있네요. 즉, **'기억이 아니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네요.

2) 그리고 둘째, 셋째 문단에서 학습의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입력 특징 추출→다음 목표치 제공 → 서로 다른 숫자로 분류하는 함수 만듬」이네요.

● 학습의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선택지와 비교해서 유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예요.

① **'목록과 일일이 대조하여'**는 **기억**의 개념과 유사하네요. 저장창고에서 불러내오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새롭게 분류할 수 있는 '학습'의 의미와 떨어져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② **'전화기 숫자 인식'**은 번호의 차이점을 분류한다는 것이네요.

③ **'타인의 음성 분류'** ④ **'접촉과 비접촉의 구별'** ⑤ **'얼굴과 얼굴이 아닌 것으로 분류'**도 모두 '분류'와 관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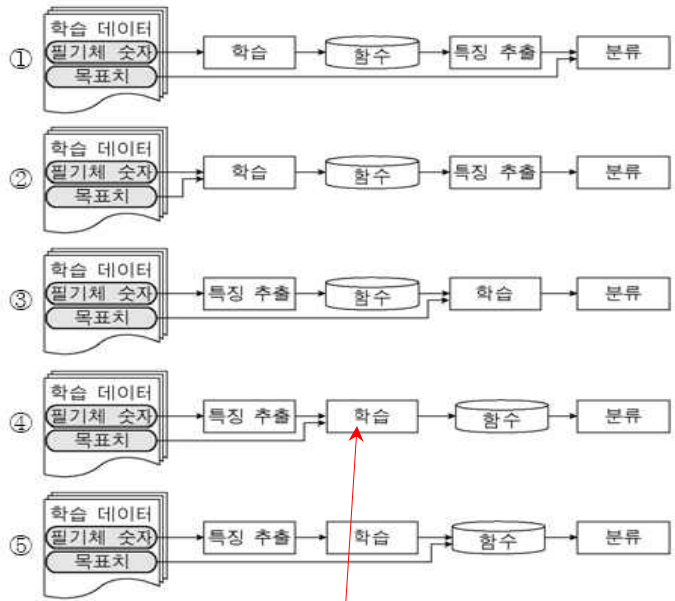
※ **'학습'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거나 그 속성을 언급한 첫 문단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첫 문단에 나오는 화제어의 속성을 잘 확인해야 하네요.**

(3)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유형

☞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유형의 일반적 특성

- 1) **지문에 나온 설명 내용과 동일한 상황을 주는 경우예요.** 이렇게 동일한 상황을 주고 지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구체 사물 대상에 대해 알려주는 설명문에서는 다른 상황을 주고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물을 수 없거든요.
- 2) 이럴 경우에는 **지문에 나오는 세부정보와 <보기>의 상황 사이에 일대일 대응이 성립해요.** 그렇게 대응하여 지문의 세부정보와 <보기>의 상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 3) **세부정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특정단락과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문제에 지레 겁 먹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특정 단락의 세부정보를 다시 살펴보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 4) 지문을 읽기 전에 대개 문제를 한 번 숙, 보게 되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느 단락과 연결될지 눈여겨 보는 것도 좋아요. 지문을 읽을 때 그 단락을 좀 더 세밀히 읽게 되거든요.

3. ㉠을 이용한 필기체 숫자 분류기의 구성도로 옳은 것은?



● 밑줄 친 ㉠(감독학습)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셋째 단락과 연결되니까 셋째 단락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1) 감독학습이 끝나면 함수를 만든다고 하였으니까, 학습 다음에 함수가 오는 순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 ④번과 ⑤번이 남게 되네요.

(기술 지문은 순서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꼭 정리해주세요.)

2) ㉠(감독학습) 앞에 '이렇게 목표치를 이용하는 학습'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목표치는 학습할 때 제공되는 것이니까 목표치와 학습이 서로 연결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 ④번이 정답이 되네요.

(4)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유형

☞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유형의 일반적 특성

1) 글의 화제어가 추상적 개념어이고, 또 다른 개념어들을 사용하여 그것을 설명하는 글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즉, **개념의 의미를 묻기 위해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 상황을 주는 것이죠.**

2) 이럴 경우에는 지문의 특정 단락과 연결될 경우도 있지만, **글 전체의 내용과 관련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념어들을 바꿔가면 설명하지만 글 전체의 화제어와 관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묻고자 하는 개념의 의미를 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3) <보기>나 선택지의 구체적 상황을 그 자체로만 보고 비교한다면 많이 혼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 상황을 하나의 개념어로 바꾸어 놓고 서로 비교하면 수월하게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구체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해주는 단어나 어절이 구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면 구체 상황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거예요.

4) 밑줄 친 지문의 내용도 복잡할 경우가 있어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역시 하나의 개념어로 바꾸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의 개념어로 바꾸어 놓고 선택지나 <보기>의 상황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유사한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2010학년도 9월 46번)

.....존 듀이는 이러한 **통일성에 대한 체험**을 미적 체험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러한 미적 체험은 현실적 삶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것은 예술 작품 속에서 상이한 요소, 행동, 사건, 주체들이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듀이는 예술의 신성화가 아니라, 예술의 세속화를 원한다. 대립되고 분열된 일상의 수많은 상호 관계와 경험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미적 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㉞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예술적 시도가 이러한 미적 체험을 실험하고 연습하는 장을 만든다면, 이는 예술 작품을 넘어 **삶 속에서도 미적 체험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6. 위 글의 「인터넷 타기」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 중, ㉞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전화기라는 단어를 말했다. 수많은 종류의 전화기가 실제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나타났다. 아마 작가는 영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생생함을 전달**하려고 한 것 같았다.

② 얼굴이란 단어를 말하자 수많은 얼굴 모습이, 인간을 말하자 각양각색의 사람들 이미지가 나타났다. 한순간이나마 **세상의 관심과 욕구에 초연**한 채 바로 내가 순수한 예술가가 된 것 같았다.

③ 정말 재미있었다.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영상으로 나타났고, 스크린을 만지니 영상이 정지하기도 했다. 나는 이 단어, 저 단어를 말하며 다양한 영상을 보았다. **컴퓨터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에 감탄했다.

④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인터넷 검색하듯이 대화 속의 단어에 상응한 이미지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스크린에 이미지로 등장한 사물들은 **일상생활의 맥락에서와는 달리 무언가 신비스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⑤ 생활이 어려워 결혼반지를 팔았던 일을 아내가 이야기했다. 그런데 똑같지는 않지만, 반지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옛일을 회상했다. 삶과 작품 공간이 하나가 되고, 이 속에서 아내와 나도 **하나 되는 느낌**을 받았다. (정답)

● ㉞의 입장을 하나의 추상적 개념어로 정리하면 **‘통일성의 체험’**이에요. 이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선택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1) ㉞의 입장은 이렇게 하나의 개념어로 바꾸어 보았어요. 그러면 선택지의 구체 사례들도 하나의 개념어로 바꾸어 보는 거예요.

2) 그리고 나서 ㉞의 의미를 보여주는 개념어와 선택지의 구체 상황을 나타내는 개념어끼리 비교하면서 유사한지 아닌지 따져보는 거지요. 선택지에서 파란 부분이 구체 상황을 한 마디로 정리해주는 부분이죠. 그 개념을 **‘통일성의 체험’**과 비교하면 되요.

7. 필독 비문학 기출 지문 40선

1) 일치-불일치 문제 유형

필독 지문	일치 - 불일치 문제
1	2011학년도 수능 25~26번 (기술 - 소프트웨어의 배열과 연결 리스트)
	25번: 일치-불일치 문제 26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2	2011학년도 수능 44~46번 (사회 - 채권)
	44번: 서술상의 특징 (=설명방식)
	45번: 일치-불일치 문제 46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기
3	2010학년도 수능 30~31번 (언어 - 언어의 변별적 자질)
	30번: 일치-불일치 문제 31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기
4	2006학년도 9월 36~39번 (사회 - 경제 심리)
	36번: 일치-불일치 문제
	37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38번: 구체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39번: 복합적인 추론 문제
5	2006학년도 9월 53번~56번(과학 - 생물학에서 역사적 질문)
	53번: 일치-불일치 문제
	54번: 일치-불일치 문제
	55번: 구체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56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6	2002학년도 수능 56~60번 (인문 - 꿈)
	56번: 일치-불일치 문제
	57번: 서술상 특징
	58번: 구체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59번: 추론의 근거 확인하기
	60번: 추론 문제

2)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유형

필독지문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7	2005학년도 수능 28~32번 (사회 - 선별효과 이론과 보강효과 이론)
	28번: 일치-불일치 문제
	29번: 서술상 특징
	30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31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8	2010학년도 9월 36~39번 (기술 - 우편번호 자동분류기)
	36번: 일치-불일치 문제
	37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9	2010학년도 수능 24~26번 (과학 - 유전체 유사도)
	24번: 서술상의 특징
	25번: 일치-불일치 문제
	26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10	2005학년도 6월 45~48번 (기술- 자격루)
	45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46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47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48번: 문제 조건과 해결 실마리가 암시된 문제
11	2008학년도 6월 33~36번 (인문 - 성품의 탁월함)
	33번: 서술상의 특징
	34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35번: 복합적인 추론 문제
	36번: 어휘 문제
12	2008학년도 6월 37~39번 (과학 - 심해저 동물)
	37번: 일치-불일치 문제
	38번: 어휘문제 (구체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39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13	2008학년도 6월 19~22번 (사회 - 위치적 외부성)
	19번: 일치-불일치 문제
	20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21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22번: 어휘 문제
14	2008학년도 6월 40~42번 (언어 - 소쉬르 공시대)
	40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41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42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15	2007학년도 6월 33~36번 (기술 - 6시그마 경영)
	33번: 일치-불일치 문제 34번: 어휘 문제 35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36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16	2010학년도 6월 47~50번 (예술 - 영화의 추상적 의미 표현하기)
	47번: 일치-불일치 문제 48번: 서술상 특징 49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50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3)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유형

필독지문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17	2011학년도 수능 32~36번 (과학 - 그레고리력)
	32번: 일치-불일치 문제 33번: 복합적인 추론 문제 34번: 일치-불일치 문제 35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18	2110학년도 수능 20~23번 (사회 - 기업결합)
	20번: 일치 - 불일치 문제 (주제 찾는 문제) 21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22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19	2010학년도 수능 42~45번 (예술 - 음높이와 음길이)
	42번: 일치-불일치 문제 43번: 서술상 특징 44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45번: 어휘 문제
20	2005학년도 9월 57-60번 (기술 - 공개키 암호화)
	57번: 서술상 특징(=글의 구성방식) 58번: 일치-불일치 문제 59번: 어휘 문제 60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기
21	2010학년도 9월 18~20번 (과학 - 인니)
	18번: 일치-불일치 문제 19번: 추론 문제 20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22	2009학년도 6월 13~15번 (과학 - 신기루)
	13번: 일치-불일치 문제 14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기 15번: 추론의 근거 확인하기
23	2007학년도 6월 57~60번 (예술 - 소리굽쇠)
	57번: 주제 찾는 문제

	<p>58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p> <p>59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p> <p>60번: 어휘 문제</p>
24	2009학년도 수능 34~36 (과학 - 공통 발자국)
	<p>34번; 주제 찾는 문제 (=표제와 부제)</p> <p>35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p> <p>36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p>

4)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유형

필독지문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25	2010학년도 9월 44~47번 (예술 - 인터넷 타기)
	44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45번: 복합적인 추론 문제
	46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47번: 어휘 문제
26	2010학년도 수능 46~50번 (기술 - 장비의 신뢰도)
	46번: 일치-불일치 문제
	47번: 추론 문제
	48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49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50번: 어휘 문제
27	2011학년도 수능 37~39번 (언어 - 두더지 비통사적 합성어)
	37번: 일치-불일치 문제
	38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39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28	2011학년도 수능 21~24번 (인문 - 체계미학 이론)
	21번: 일치-불일치 문제
	22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23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24번: 어휘 문제
29	2010학년도 9월 33~35번 (언어 - 비교언어학)
	33번: 일치-불일치 문제
	34번: 복합적인 추론 문제 35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30	2006학년도 수능 31~34번 (언어 - 증거법)
	31번: 일치-불일치 문제
	32번: 서술상 특징
	33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34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31	2010학년도 6월 38~42번 (사회 - 반론권)
	38번: 서술상 특징(=논지 전개 방식)
	39번: 일치-불일치 문제

	<p>40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p> <p>41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p> <p>42번: 어휘 문제</p>
32	2009학년도 9월 44~46번 (사회 -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자 효과)
	<p>44번: 서술상 특징(=글의 구성 방식)</p> <p>45번: 일치-불일치 문제</p> <p>46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p>
33	2010학년도 9월 13~17번 (인문 - 동양에서 천의 의미)
	<p>13번: 일치-불일치 문제</p> <p>14번: 주제 찾는 문제</p> <p>15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p> <p>16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p> <p>17번: 어휘 문제</p>
34	2010학년도 수능 13~15번 (인문 - 조선 성리학자들의 지행론)
	<p>13번: 주제 찾는 문제</p> <p>14번: 일치-불일치 문제</p> <p>15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p>

5) 문제 조건과 해결 실마리가 암시된 문제 유형

필독지문	문제 조건과 해결 실마리가 암시된 문제
35	2010학년도 6월 36~37 (과학 - 생태계에서 가위바위보 관계)
	36번: 문제 조건과 해결 실마리가 암시된 문제 37번: 추론 문제
36	2010학년도 6월 20~22번 (기술 - 귀의 소리)
	20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21번: 문제의 조건과 해결이 암시된 문제 22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37	2002학년도 수능 47~51번 (예술 - 사물놀이)
	47번: 일치 - 불일치 문제
	48번: 추론 문제
	49번: 추론의 근거 확인 문제
	50번: 어휘 문제
	51번: 문제의 조건과 해결 실마리가 암시된 문제

6) 논리학적 비판 문제 (주장문)

필독지문	논리학적 비판문제
38	2009학년도 수능 40~42 (인문 - 집단 수준의 인과)
	40번: 서술상 특징 41번: 일치-불일치 문제 42번: 주장-근거 확인 문제
39	2001학년도 수능 37~41 (사회 - 비대칭적 상호주의)
	37번: 일치-불일치 문제 38번: 서술상 특징(=논지 전개 방식) 39번: 어휘 문제 40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41번: 주장에 반론 펴기
40	2004학년도 수능 48~51 (인문 - 사회성과 반사회성)
	48번: 서술상 특징 49번: 구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50번: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요약하기) 51번: 주장에 반론 펴기

(후기)

2~3일 동안 수험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기출문제 분석서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글을 이해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가장 효율적인 수능 언어 방법임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게 수능 언어를 해결하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수능 대박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해요. 수능 언어의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라면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간단해요.

문제는 수험생들의 읽기 능력이에요. 수능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확실하게 터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전에서 해결하는 능력은 훈련밖에 없어요. 기출 지문 읽기와 문제 분석을 충실히 하면서도 매일 몇 개의 비문학 지문을 시험 현장처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능 언어는 너무 뻥합니다. 5개 지문이 EBS 교재에서 나옵니다. EBS 교재에 나오는 어려운 지문들은 두 번 이상 훈련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EBS 필독 지문도 정리하여 제공하도록 해볼게요. 열공하시고 수능 대~박 나세요.

이 자료가 도움이 되고 팬찮다고 생각하시면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 정말 친한 친구들 2~3명에게는 열공신기의 자료와 게시판 글도 소개해주시고, 저의 글에 추천과 댓글도 올려주시면 저한테 많은 힘이 되겠네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더 좋은 자료를 제공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 열공신기 올림-